

영·유아용 외국그림책의 그림, 글 및 문화적 내용에 대한 번역 내용 분석 연구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s of Foreign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

이영신(Young Shin Lee)¹⁾

김명순(Myoung Soon Kim)²⁾

ABSTRACT

Of the 2,593 children picture books published in Korea between 2001 and 2003, 46% were Korean in origin, while 53.9% were Korean translations of books originally in English, Japanese, French, or German. This study compared 45 of the translations with the originals. Of these, 49.2% had content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s, and 31.1% had omitted contents. Moreover, 7.6% of the Korean versions were different in punctuation codes and signs, and 6.7% were different from originals in length of sentences. Most of the books were on general or global issues rather than culture-bound. However, among the English books, there were more than 20 cases different from Korean culture in person's names, external appearance, food, and/or clothing.

Key Words : 외국어 그림책(foreign picture book), 번역(translation), 영유아 그림책(picture book for young children).

I. 서론

그림책은 작가와 화가와 편집자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 있는 책'이다(마쓰이 다다시, 1990; Cullinan, 1993). 이는 글과 그림이 전체 본문의 완성을 위해 서로 각각 다른 매체로서 표현되어 독특한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책은 영유아에게 최초의 문학 경험을 제공하며, 즐거운 그림책 경험을 통해 영유아들은 읽기 태도 형성, 상상력과 상상력의 신장, 언어 발달, 심미적 감상력의 발달 등을 한다(김세희·현은자, 1995). 또한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김금희, 2003). 이에

¹⁾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 연구원 교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n Lee,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tweety0425@hanmail.net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한국어린이도서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각 신문사 등에서는 해마다 유아를 위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시상하여 좋은 그림책 출판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림책의 편파적인 출판 경향이다(김명순, 2002). 정보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순수 창작그림책 출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의 0세에서 7세 대상 도서의 베스트셀러 중 75%가 번역도서인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http : //www.kyobo.co.kr](http://www.kyobo.co.kr), 2005년 1월 셋째 주 교보문고 유아도서베스트셀러순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외국그림책이 무분별하다할 만큼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번역된 그림책 수를 보면 1991년도에 468종이었던 것이 IMF직전인 1997년에는 964종이었고, 2000년에는 1,333종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명순, 2002). 이는 번역그림책이 출판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며,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엄혜숙, 2002).

외국 여러 나라의 그림책을 접하면서 영유아는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인식할 수 있으며(이경우, 1996), 특히 좋은 번역그림책은 영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윌레(2002)는 번역그림책이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보편적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번역그림책이 한 나라 안에서 편파적으로 출판된다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인적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Cornett, 1999).

급증하는 번역그림책의 양에 비해 번역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고혜진(1997)은 번역그림책에서 원문 내용 생략, 문장의 부적절한 번역, 부호 사용의 불일치, 내용첨가, 단어의 부적절한 번역, 운율 및 리듬감의 불일치, 원 작가 문체의 불일치, 대명사, 존칭어, 문투, 글·그림 비연결, 글·그림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명순(2002)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줄 때 교사들 중 32%가 내용번역에 문제가 있어 유아에게 읽어주는 것이 어색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번역그림책이 영유아도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유아용 도서의 출판 현황에 대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이나 내용주제, 창작그림책 또는 수상도서에 대한 분석(강문희, 2000; 고혜진, 1997; 심은희, 1996; 전혜실, 2002)등으로 번역그림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번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안데르센 동화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윤희자, 1985)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문학의 번역 실태를 조사한 연구(김중철, 1996) 등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번역 그림책이 다양한 문화를 전달한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화 요소들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정숙(1995)은 Caldecott 메달 도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여러 나라, 민족, 인종을 나타내는 등장인물과 배경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상 도서만을 중심으로 대부분 다문화 이해나 다른 사람의 이해에 초점을 두어 그 분석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에 번역 그림책이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전체 영유아 도서 중 번역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그 출판 경향을 어떠한지 먼저 알아보았으며, 그 다음 좀 더 심층적으로 번역그림책을 원본과 일대일로 비교해 봄으로써 원본과의 일치성 및 문화적 전달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유아에게 언어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좋은 번역그림책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교사나 부모에게 영유아를 위한 좋은 번역그림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우리나라에서 2001-2003년의 총 3년 동안 출판된 번역그림책의 출판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의 내용과 그림은 원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 <연구문제 3>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의 문화적 내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도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도서 선정 과정은 두 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의 전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3년 동안 출판된 영유아용 그림책 2,593권 중 번역그림책 1,397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그림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출판연감에 공식 수록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출판연감 아동도서 부분의 목록에 있는 모든 단행본 책을 선정하였다. 둘째, 목록 중에서 50쪽 미만의 그림책을 선정하되 초등학생용 도서라고 제시된 책은 제외하였다. 이는 전혜실(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유아용 그림책의 97%가 4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에 기초하였다. 셋째, 이렇게 선정된 도서 중 글 작가가 외국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번역그림책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영유아용 일반그림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출판연감에 도서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도 있어 이는 인터넷 조사를 통해 출판사 명단을 확보하였고, 해당 출판사에 요청하여 영유아용 그림책 목록을 받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 대상 도서선정 과정으로 그림책의 번역 내용과 그림의 적절성 및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45권의 번역그림책과 원본 45권을 선정하였다. 첫째, 총 번역그림책 1,397권 중 출판사별로 그림책의 수를 조사하여 출판한 도서의 총 수 비율에 따라 도서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100권이상의 번역그림책을 출판한 곳도 있는 반면 3년 동안 3-4권의 번역그림책만을 출판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출판사의 그림책들만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즉 지난 3년 동안 한 출판사가 출판한 번역 도서의 수가 5권 이하, 6-20권, 21-100권, 100권 이상인 경우로 나누었다. 그 결과 총 1,397권 중 5권 이하를 출판한 출판사의 번역도서는 전체의 8%, 6-20권이 31%, 21-100권이 48%, 100권 이상이 11%로

조사되었으므로 50권의 원본그림책은 이 비율에 따라 각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각각 4권, 16권, 24권, 6권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번역 출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영어와 일어 번역그림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번역그림책 각각의 총 수에 따라 선정 비율을 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비율에 따라 선정한 50권 중 번역 전의 원본이 절판 등으로 인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5권을 제외하고 총 45권의 원본그림책과 45권의 번역그림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영어의 번역그림책은 35권, 일어의 번역그림책은 10권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전체 번역그림책을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을 분석하였고, 전체 번역그림책 중 이차로 선정한 45쌍의 도서를 대상으로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번역그림책의 현황 분석

분석 목록은 고혜진(1997)과 전해실(2002)의 그림책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출판 연도에 따라 출판사명, 도서명, 장르, 글 작가, 그림 작가, 원본출판국가, 원본 언어, 저작권 유무, 번역자 표시유무, 번역자 정보 표시유무, 번역자 정보, 판형, 페이지 수, 가격 등 이었다.

2) 번역그림책의 글과 그림 번역 및 문화적 요소 분석기준

(1) 번역의 적절성 분석 기준

먼저 번역그림책이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글, 그림, 형식, 문학적 요소로 나누어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였다. 우선 글에 있어서 원본과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 이경우 외

(1997)와 고혜진(1997)이 제시한 분석 기준을 기초로 하여 내용의 첨가와 생략, 부호 사용의 불일치, 문장 길이의 불일치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림과 형식에 있어서 원본과의 일치성을 보기 위해서 전해실(2002)의 형식에 관한 요소 분석 기준을 참고하였다. 그림에 대한 분석 기준은 각각 글과 그림의 부적절한 연결, 그림의 첨가 또는 생략, 그리고 그림 요소(색, 선, 모양, 질감, 배열, 전체적 요소)의 불일치이며, 형식에 대한 분석 기준은 표지 구성, 내용 분량, 판형, 활자 구성 등의 불일치이다. 이 중 표지 구성의 불일치는 원본 그림책과 번역 그림책의 겉표지, 뒷표지, 등 면의 구성이 원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판형의 불일치는 번역그림책의 크기, 모양, 글의 양이 원본과 다른 경우이다. 판본에 따라 다른 표지나 판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번역그림책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권상의 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해,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원본그림책을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장 구조상의 번역에 대한 분석 기준은 안정효(1996)의 내용을 기초로, 조홍섭(2001)이 「번역과 오류교정」에서 문구조상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제시한 영어와 한국어의 구문적 차이를 참고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2) 번역 그림책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분석 기준

번역그림책이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경숙(1995)의 다문화 분석 기준, 임용순(2002)의 어휘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분석 기준을 결정하였다. 그림책의 내용 중에 어떠한 문화적 요소들이 언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식주, 생활양식, 고유의 문화적 유형물, 시대적 장소적 특징, 미술적 기법, 언어, 외모(인종적 특징), 사람이름, 직업, 기타로 나누

었다. 각 그림책의 주제와 내용을 보고 글과 그림에서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종류의 문화적 요소들이 몇 번 제시되었는지 기록하였으며, 중복된 것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번역그림책 현황 조사를 위해 선행 연구를 기초로 분석 항목들을 선정하고, 2001년에 출판된 그림책 711권의 자료를 조사하여 최종 분석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차적 분석인 번역그림책의 번역 적절성과 문화적 요소 분석을 위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항목을 일차적으로 선정한 후 영어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분석 항목을 가지고 영어 및 일어 번역그림책 각각 10권에 대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영어그림책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아동학전공자 1명, 일어 그림책에 대해서는 한국 내 일본인 학교의 유치원 교사로 있는 1명이 함께 협의하여 이차적으로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2) 본 조사

일차적 분석인 번역 그림책의 현황 조사는 첫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출간된 대한민국 출판연감을 통해 얻은 2001-2003년까지의 아동 도서 목록 중 영유아 그림책 목록을 선정하여 분석 항목을 입력하였다. 둘째, 연감에 없는 분석 항목들의 내용은 인터넷과 직접 그림책 조사를 통해 입력하였다. 45쌍의 도서에 대해서 원본그림책과 번역그림책을 구하고, 각각의 분석 항목에 대해서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 대조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어 번역그림책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 아동학전공자 1인과의 일치도 분석(95.0%)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였으며, 일어 번역그림책의 경우 일본인 학교 유치원 교사 1인과 함께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빈도와 퍼센트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번역그림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 동안 번역·출판된 그림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도서 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번역그림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창작그림책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출판사별 총 번역 도서의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곳의 출판사에서 번역 도서를 출판하였다. 총 도서가 1,397권이었으므로 출판사별로 평균 12.9권의 번역그림책을 출판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몇몇 곳이 번역도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한 반면, 전체의 반수 정도의 출판사는 5권 이하의 번역그림책을 출판하여 매년 출판되는 번역그림책 수는 출판사별로 매우 달랐다.

<표 1> 국내그림책과 번역그림책의 연도별 출판 도서 수 단위: 권(%)

출판연도	국내 그림책	번역 그림책	계
2001	418(58.8)	293(41.2)	711(100)
2002	412(42.2)	565(57.8)	977(100)
2003	366(40.5)	539(59.5)	905(100)
계	1196(46.1)	1397(53.9)	2593(100)

2) 번역그림책의 원본출판지역 및 언어 경향
 번역그림책의 원본출판지역과 원본 언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총 1,397권 중 유럽에서 출판된 그림책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18.0%), 아시아(18.0%), 오세아니아(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번역그림책의 21.0%인 293권의 경우 원본 출판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그림책의 정보 표시 부분에 저작권 보유자, 출판에이전시, 출판사의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별도의 원본 출판국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본 그림책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영어로 쓰여진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최근 3년 동안 번역된 책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어, 불어, 독어로 쓰여진 그림책 순이었다.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나 러시아, 체코

<표 2> 원본 언어에 따른 출판연도별 번역그림책 수
 단위 : 권(%)

원본 언어	2001	2002	2003	계
영 어	46(15.7)	199(35.2)	265(49.2)	587(42.0)
일 어	123(42.0)	121(21.4)	60(11.1)	227(16.2)
불 어	44(15.0)	97(17.2)	58(10.8)	199(14.2)
독 일 어	32(10.9)	42(7.4)	51(9.5)	125(9.0)
이탈리아어	13(4.4)	16(2.8)	69(1.1)	35(2.5)
네덜란드어	2(0.7)	19(1.6)	12(2.2)	23(1.6)
중 국 어	0(0.0)	8(1.4)	9(1.7)	17(1.2)
스페인어	1(0.4)	4(0.7)	10(1.9)	15(1.1)
스웨덴어	3(1.0)	5(0.9)	6(1.1)	14(1.0)
덴마크어	0(0.0)	6(1.1)	1(0.1)	7(0.5)
그리스어	0(0.0)	1(0.2)	2(0.4)	3(0.2)
노르웨이어	3(1.0)	0(0.0)	0(0.0)	3(0.2)
러시아어	1(0.4)	1(0.2)	1(0.1)	3(0.2)
체 코 어	1(0.4)	0(0.0)	0(0.0)	1(0.1)
히브리어	0(0.0)	0(0.0)	1(0.1)	1(0.1)
정보 없음	23(7.8)	56(9.9)	57(10.6)	136(9.7)
계	293(100.0)	565(100.0)	539(100.0)	1397(100.0)

<표 3> 번역자 배경

전 공	빈도(권)	비율(%)
외국어 전공	440	50.2
국문학 전공	45	5.1
문예창작전공	38	4.3
외국어와 국문학 전공	25	2.9
아동 관련전공	18	2.1
교육학 전공	11	1.3
교육학과 국문학 전공	7	0.8
교육학과 외국어 전공	1	0.1
외국어와 아동 관련전공	1	0.1
기 타	291	33.0
계	877	100.0

등의 언어로 된 그림책은 매우 적게 번역되었다.

3) 번역자에 대한 정보

분석 대상 번역그림책 총 1,397권 중 89%가 번역자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약 63%가 번역자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고 있었다. 번역자의 배경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번역그림책의 번역자 중 절반 이상이 주로 외국어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며 아동 관련 전공자는 2.1%로 나타났다.

2. 번역그림책의 번역 및 문화적 요소 분석 결과

1) 글과 그림의 번역 충실성 분석 결과

번역그림책이 원본그림책의 글과 그림 번역에 있어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보면 총 45권의 원본그림책과 번역그림책에서 총 1,322회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글에 있어서는 번역 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첨가가 경우가 전체의 49.2%를 차지했고, 내용

〈표 4〉 영어 및 일어그림책 원본에 대한 충실성 분석

단위 : 회(%)

범 주	불일치 유형	영어 번역 그림책 (n=35)	일어 번역 그림책 (n=10)	계 (N=45)
글	내용 첨가	547(49.0)	103(50.2)	650(49.2)
	내용 생략	350(31.4)	60(29.7)	410(31.0)
	부호 사용 불일치	91(8.1)	9(4.4)	100(7.6)
	문장 길이 불일치	83(7.4)	6(2.9)	89(6.7)
그림	글과 그림의 비연결	4(0.4)	12(5.9)	16(1.2)
	그림 요소의 불일치	4(0.4)	2(0.9)	6(0.5)
	그림의 첨가 또는 생략	0(0.0)	0(0.0)	0(0.0)
형식	표지 구성의 불일치	25(2.2)	6(2.9)	31(2.3)
	내용 분량의 불일치	11(1.0)	7(3.4)	18(1.4)
	판형의 불일치	1(0.1)	0(0.0)	1(0.1)
	활자 구성의 불일치	0(0.0)	0(0.0)	0(0.0)
계		1116(100.0)	205(100.0)	1322(100.0)

〈표 5〉 원본그림책과 번역그림책의 글에 있어서의 불일치 사례

구분	원본	번역본	분석
내용첨가	“Ho, Mouse!” says Hare. “Long time, no see!” So they pop white corn. And they brew black tea.	“이야~ 생쥐야!” 산토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생쥐와 산토끼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에 하얀 팝콘을 고소하게 튀기고 홍차를 따뜻하게 끓여냈어요. (출처 : 아기곰이 잠잘 때, 2002)	원본에 없는 표현들이 4회 첨가되었음. 그 중 1회(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에)는 그림에서 있는 장면의 설명이고, 나머지 3회(반갑게, 고소하게, 따뜻하게)는 번역자의 주관적인 첨가임.
내용생략	Pigasso and Mootisse were becoming art superstars. <u>But this came with a price.</u> Everybody wanted to see them : art buyers, art sellers, art historian, art groupies. <u>It was an art attack!</u>	피가소와 무티스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모두 피가소와 무티스를 만나고 싶어했지요. 미술관, 박물관, 학교, 화랑에서 매일 몰려와서 법석이었어요. <u>마치 시장통 같았어요.</u> (출처 : 피가소가 무티스를 만났을 때, 2002)	원본있는 한문장 전체가 1회 생략되었으며, “ <u>It was an art attack!</u> ” 문장이 생략되고 “마치 시장통 같았어요.”라는 문장이 첨가되어 다른 의미로 해석됨.
부호사용 불일치	Are you the monster? Not me. I'm a nurse.	네가 괴물이니? 아니! 난 간호사! (출처 : 괴물이다 괴물!, 2003)	원본에 나타나지 않은 느낌표가 2회 첨가되었음.
문장구조의 불일치	Ladybird, Ladybird, fly away home, Your house is on fire, your children are gone.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집으로 날아라. 네 집에 불났대, 아기들이 울고 있대. (출처 :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멀리멀리 날아라, 2003)	원본에서는 화자가 무당벌레에게 직접 얘기해주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나, 번역본에서는 화자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간접 화법으로 번역되어 있음.

을 생략한 경우가 31.1%, 부호 사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7.6%, 문장 길이가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부호사용이나 문장 길이의 불일치는 언어구조상 한글과 다른 영어번역에서 일어번역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림에 있어서는 글과 그림이 연결되지 않게 번역한 경우가 전체의 1.2%, 그림 요소가 불일치한 경우가 0.5% 나타났으며, 형식에 대해서는 표지 구성의 불일치가 전체의 2.3%, 활자 구성의 불일치가 전체의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문장 구조에 대한 불일치한 번역은 총 45권 도서에서 129회 나타났으며, 영어 원어 그림책에서 평균 3.5회, 일어 원어 그림책에서 평균 0.6회 있었다.

번역그림책을 원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용 첨가, 생략, 부호사용 및 문장구조의 불일치에 대한 사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2) 번역그림책의 문화적 요소 분석 결과

번역그림책이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어 번역그림책에서는 사람이름이나 외모, 의생활, 식생활에서 20회 이상의 문화적 요소가 나타났고, 생활양식 15회, 주생활 12회, 장소적 특징 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어 번역그림책에서는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는 요소가 영어 그림책에 비해 적어, 의생활 13회, 생활양식 5회, 주생활 4회, 외모 2회, 고유의 문화적 유형물 2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일어 번역그림책은 서구 문화 중심으로 표현되어 일본이나 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을 살린 도서는 매우 적었다. 다만 몽골 민화를 바탕으로 한 ‘수호의 하얀 말’에서만 몽고 민족들의 의복, 주생활, 생활양식 등에 대한 그림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몽고의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6> 번역그림책이 전달하는 문화적 요소
단위 : 회

분석 범주	영어 번역그림책 (n=35)	일어 번역그림책 (n=10)
의 생활	22	13
식 생활	22	0
주 생활	12	4
생활양식	15	5
고유의 문화적 유형물	1	2
시대적 특징	1	0
장소적 특징	6	0
미술적 기법	1	0
언 어	3	0
외모(인종적 특징)	24	2
사람이름	25	0
직 업	0	0
기 타	26	2

IV. 논의 및 결론

1. 번역 그림책의 출판 경향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출판된 영유아 대상 그림책은 총 2,593권이였다. 이 중 국내 작가의 그림책이 1,196권으로 전체 그림책의 46.1%, 번역그림책이 1,397권 53.9%로 나타나 번역그림책이 더 많이 출판되었고, 해마다 번역그림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도서 출판 시장에서 번역그림책의 편파적인 출판 경향을 지적한 탁정은(2002), 김명순(2002)의 지적과 일치한다.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보편적인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번역그림책은 긍정적 가치를 가지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도서의 비율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려

할만한 일이다. 그림책의 편파적인 출판으로 인해 독자인 영유아들은 어린 시기부터 인지적, 정서적인 성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오류, 작가의 의도 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고혜진, 1997; 김중철, 1996; 부임옥, 1989; Netley, 1992; Routman, 1988), 유아교사들은 유아에게 번역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김명순, 2002).

이와 더불어 번역그림책의 출판 권수가 많아지면, 로열티의 지불 문제로 인해 점점 더 국내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지기 힘들 것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점차 국내 작가의 그림책 출판이 감소하고 번역그림책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영유아가 좋은 국내 작가의 그림책을 접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번역그림책의 출판에만 치중하기 보다 좋은 국내그림책 작가의 발굴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더불어 국내 작가그림책과 번역그림책의 균형 있는 출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그림책의 원본출판지역은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순이었고, 원본언어는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순으로 그 국가와 언어 면에서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 또한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그림책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 그림책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월례(2002)는 현재 국내 번역서가 주로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고루 이해해야 하는 영유아들에게 서구 중심의 편중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그림책 작가의 발굴, 육성과 더불어 현재보다 더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그림책들이 고루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번역그림책의 10권중 9권이 번역자 이름을 표기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번역의 전문성이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번역자는 주로 외국어나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어 해당 언어에 대한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전공자들이 아동문학에 대한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이해만으로 아동문학을 좋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책은 문화를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번역자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아동문학에 대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영유아를 위한 도서의 번역은 출판사의 편집자나 일반 번역자보다는 영유아라는 독자의 심리적 특성 및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번역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김중철, 1996; 최운정, 1997; Oittinen, 1989). 이에 대해 출판사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출판사는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며, 아동문학의 특징을 아는 전문가에게 번역을 맡기고,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정서에 맞는 외국 그림책이 번역 소개되도록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김중철, 1996). 이와 더불어 좋은 번역책을 올바르게 평가해주는 학회나 전문가 단체의 역할도 역시 필요하다(김명순, 2002).

2. 번역그림책의 원본과의 일치성 및 문화적 요소

번역그림책을 원본과 비교해보았을 때 불일치가 총 1,322회 있었고 이는 한 권당 평균 29.4회를 의미한다. 번역그림책의 글에 있어서는 원본

에 없는 문장이나 단어를 첨가하거나 반대로 생략하고 있어 원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위한 도서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쓰여져 있어야 하지만, 영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 임의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첨가하거나, 영유아가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유추하여 생략하는 것은 원저자의 문학적 의도를 깨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내용첨가의 경우 대부분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 이야기의 분위기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형용사, 부사,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첨가하고 있었다. 최윤정(1997)은 문장이 독자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도서라는 이유로 원작에 없는 내용을 번역자가 임의로 첨가하거나 설명 해주는 것은 과잉 친절이라고 비판하였다. 김중철(1996)은 원문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충실하게 번역하여 아동문학 작품을 완역하는 것이 번역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림의 상황을 글로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함으로써 원본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그림은 시각적인 정보를 주로 전달하며 글의 특정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글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압축한다(변윤희·현은자, 2002). 이처럼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현은자·강은진·변윤희·심향분, 2004). 따라서 원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글과 그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번역자는 원본그림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번역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호 사용이 원본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정효(1996)는 모든 부호는 작가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번역자나 편집자가 제멋대로 침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간혹 언어의 차이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부호가 다르거나, 같은 부호라 하더라도 낱안스가 다를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번역본에서 특히 원본에 없는 느낌표나 물음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원본이 주는 의미나 느낌을 더 강하게 부각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만약 우리 문화와 언어에서 느낌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면 성인의 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이 나타나야하지만, 특히 영유아대상 그림책에서만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글의 분위기나 내용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이 부적절하게 추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번역그림책의 그림이나 형식은 글에 비해서 원본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글과 그림의 연결이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번역본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 요구된다. Stewig(1995)는 그림의 기본 요소들을 그림 작가들이 선택하는 그림의 어휘라고 하였으며, 글 작가들이 사용하는 개별 단어에 비유하였다. 또한, 이호백(1995)은 페이지 전개 방식과 그림의 스타일은 불가분의 관계로 모두 영상적 언어를 수용하게도 하고, 현실과 꿈을 자유롭게 넘나들게도 한다고 하였다. 만약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도를 무시하고 글과 그림의 연결을 바꾸거나, 그림을 첨가 또는 생략하게 되면 저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그림을 통한 감동과 이해를 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 구조의 번역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일치가 적게 나타났다. 많은 번역자들이 해당 언어에 대한 전공자이며, 특

히 영어의 경우 전공자가 아니어도 다양한 경로로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은 최근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한국어와 인도유럽어의 하나인 영어는 그 특성이 다르며, 특히 어휘, 어순, 문장구조, 문법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조홍섭, 2001). 상대적으로 일본 번역그림책에서 문장 구조상의 불일치한 번역이 적게 나타난 것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순이나 문장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일본어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많은 반면, 우리말에서는 동사를 사용하여야 문장이 완결되기 때문에 문장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휘 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류의 대부분은 두 언어의 표현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홍섭(2001)에 따르면 어휘 면에서 영어는 어느 언어보다도 가장 풍부하여 명사형이 두드러지게 발달한 반면, 한국어는 서술어의 발달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를 수식하는 부사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그림책의 번역에 있어서 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어를 찾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존칭어 사용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 등으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구조상이나 어휘 사용에 있어서 두 언어의 차이를 알고, 가장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아동문학번역에서 원작자의 의도 왜곡으로 인한 내용 혼동, 거부감, 예술적 감응의 감소가 초기 그림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번역 그림책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외모, 의생활, 식생활, 생활양식 등이 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주로 서

양의 문화에 편중되어 있었다. 영유아는 그림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활을 쉽게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그림책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즉,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모습, 나이프와 포크의 저녁식사 장면, 칠면조 고기가 차려진 식탁, 점점 옷에 금색 뱃지를 한 경찰관의 모습 등 우리나라에서 낯선 장면이 그림책에서는 일상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 교사들이 번역 도서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는 장면이나 사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김명순, 2002).

어떠한 그림책을 번역할 것인가 혹은 어떤 번역그림책을 영유아에게 읽어줄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는 현재까지 많이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번역 그림책의 장점을 살리면서 영유아들에게 문화적, 발달적으로 적합한 번역그림책의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 사회에서 우리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를 구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교사나 부모들은 현재 영유아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번역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신발을 신는 장면이 나왔다면 그냥 지나치기 보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을 언급해주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출판연감에 수록된 영유아용 단행본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 집류를 포함한 그림책을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번역서의 분석 과정에서 원작자의 문체, 작품의 분위기, 관점 등과 같은 문학적 요소 등은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분석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하게 진행되었던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에 대해 객관적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번역도서의 출판 경향 및 번역 그림책의 문제를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 동안 출판된 영유아용 번역그림책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번역그림책의 내용은 그림에 비해 원본과의 불일치가 더 많았고 문화적 내용은 서양문화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2000).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아동도서의 내용 주제에 따른 출판 경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5(1), 31-48.
- 고혜진(1997). 한국어판 Caldecott 수상도서 현황 및 번역 오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희(2003). 그림책을 통한 세상과의 상호작용. 2003 서울 언어교육연구회 유아언어교육 교원 직무연수교재 : 그림책과 함께하는 세상, 45-77.
- 김명순(2002). 한국조기교육의 과제 : 조기교육의 상업화(학습지, 아동도서 및 놀이감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83-103.
- 김명순·신유림(공역)(2002). *영유아의 문해발달 및 교육*. 서울 : 학지사.
- 김세희·현은자(1995). *어린이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 서울 : 서원출판사.
- 김중철(1996). 아동문학의 번역 실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출판연구*, 7, 71-89.
- 마쓰이 다다시(1990).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이상금(역). 서울 : 샘터사.
- 변윤희·현은자(2002).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그림책의 글과 그림 읽기. *유아교육연구*, 22(2), 339-362.
- 부임옥(1989). 번역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1995). Caldecott 메달 도서의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은희(1996).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의 장르 및 구조 분석 (1990년-1996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효(1996). *번역의 테크닉*. 서울 : 현암사.
- 엄혜숙(2002). 그림책 출판의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년 정기세미나 자료집.
- 윤희자(1985). 안데르센 동화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 영역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우 역(2001). *총체적 언어 : 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 창지사.
- 이경우(1996). *총체적 언어*. 서울 : 창지사.
- 이경우·장영희·이차숙·노영희·현은자(1997). *유아도서 추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 양서원.
- 이호백(1995). 그림책 이해의 새로운 전망을 위하여. *출판연구*, 7, 91-106.
- 임용순(2002). 한국 영아의 어휘 발달과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실(2002).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월례(2002).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년 정기세미나자료집.
- 조홍섭(2001). 번역과 오류 교정. *동화와 번역*, 2, 133-161.
- 최윤정(1997).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탁정은(2002). 그림책 출판 현황.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년 정

- 기세미나 자료집, 53-69.
- 현은자·김세희·김현희·서경숙(2000). *어린이 미디어 상 제정을 위한 기반 연구*. 서울 : 창지사
- 현은자·강은진·변윤희·심향분(2004). *그림책의 그림 읽기*. 서울 : 도서출판 마루벌.
- Cornett, C. E.(1999). *The arts as meaning maker*. New Jersey : Prentice Hall.
- Cullinan, B. E.(1993). *Let's read about : Finding books they'll love to read*. NY : Scholastic Inc.
- Netley, N. S.(1992). The difficulty of translation : Decoding cultural signs in other language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23(4), 195-202.
- Oittinen, R.(1989). On translation for children : A finnish point of view.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48, 29-37.
- Routman, R.(1988). *Transition from literature to literacy*. Portsmouth, NH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2005년 10월 31일 투고 : 2006년 1월 28일 채택